

# 보살운동 불씨 다시 한번

### 한국불교학연, 이기영 박사 입적 15주기 추모학술대회

‘사회참여’는 이 시대 불교계의 화두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라마, 틱낫한, 아웅산 수지 등은 세계적인 참여불교운동가들이다.

효 불연 이기영 박사(1992~1996)는 원효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한국 참여 불교운동의 토양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박사는 원효사상 발굴과 연구를 통해 원효 대사를 성사(聖師)의 반열에 오르도록 신앙했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연구원과 구도회, 원효학당 등을 세워 재가불교의 육성 및 보살정신 생활화에 힘쓴 실천적 종교인이었다.

한국 근대 불교학 발전의 선구자 불연 이기영 박사의 입적 15주기를 맞아 고인의 학문적·실천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불교학연구원(원장 이만우)은 12월 10일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 대법당에서 관련분야 학자 및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근대성과 불연 이기영의 불교- 불교학’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입주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불연 이기영 박사 생전의 추억을 나누며 숨겨진 일화를 소개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 발표 ‘불연의 사회참여 이론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불연 이기영 박사의 보살사상운동을 조명했다.

유 교수는 “불연은 보살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의 유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무 교수는 불연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한국불교연구원을 예로 들었다. 한국 불교연구원은 불연 이기영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현재에도 다양한 실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하의 천년부 원효학당 연화회 지장회 새벽기도회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존단체들과는 차별되게 불연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 교수는 “불연은 재가불교 지식인으로서 학문적 차원에서 불교적 사회참여이론을 구축한 인물”이라며 “원효의 보살사상이야말로 그 결실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연의 노력에 의해 원효가 현대에 되살아났지만, 정작 불연 자신은 원효의 위대성에 가려서 자신의 독창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유승무 교수는 불연을 “세계적인 참여 불교운동가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한국 불교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불교는 “서구근대성의 영향으로

이기영 박사, 원효 관련 논저 57개 한국불교학연과 원효학당 등 설립해 원효 통한 보살사상운동 선양 주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 발표 ‘불연의 사회참여 이론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불연 이기영 박사의 보살사상운동을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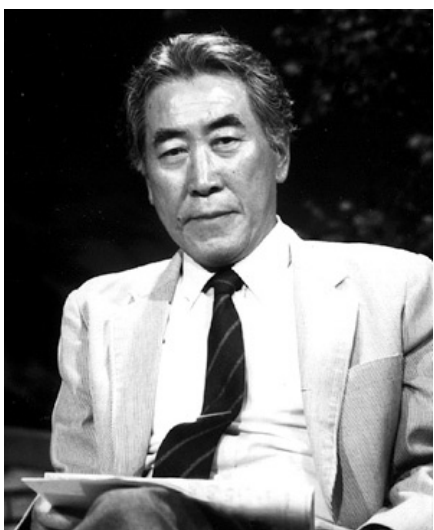
유 교수는 “불연은 보살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의 유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 발표 ‘불연의 사회참여 이론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불연 이기영 박사의 보살사상운동을 조명했다.

유 교수는 “불연은 보살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의 유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 발표 ‘불연의 사회참여 이론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불연 이기영 박사의 보살사상운동을 조명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 발표 ‘불연의 사회참여 이론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불연 이기영 박사의 보살사상운동을 조명했다.



이기영 박사

제국주의 일본사관을 뒤집는 학계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고 해석했다.

남 교수는 “근대 불교학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이식됐는데 이 당시 일본 학자들의 원효 인식은 화염종 승려로 종학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불연 이기영 박사는 원효를 민족의 위대한 성사로 평가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인 경희대 교수는 “불연 이기영 박사가 원효를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평하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기영 박사의 노력에 대한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에게서 근대 불교의 복잡한 과정을 투시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성과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기영 박사의 입적 15주기를 맞아 그의 학문적, 실천적 역량을 현대 한국불자들이 이어 받아야 한다”며 학계의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원의 설립자이기도 한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는 한국불교학의 현대화, 특히 원효사상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였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으로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불교철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고, 1960년 귀국 뒤 한국불교연구원 창설과 왕성한 저술·연구를 통해 불교사상 연구, 재가불교 육성에 힘쓴 실천적 종교인이었다.

불연 이기영 박사는 ...

한국불교연구원의 설립자이기도 한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는 한국불교학의 현대화, 특히 원효사상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였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으로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불교철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고, 1960년 귀국 뒤 한국불교연구원 창설과 왕성한 저술·연구를 통해 불교사상 연구, 재가불교 육성에 힘쓴 실천적 종교인이었다.

# 선지식들의 활약 있어 조선불교 이어져

### 황인규 교수 저서 통해 밝혀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

한국 역사상 불교를 가장 대규모로 탄압했던 시기는 조선왕조의 기틀을 세운 태종과 세종대이다. 태종은 불교계를 고려말의 10분의 1 규모로 축소시켜 불교 집체의 한계가 됐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선왕조는 유교문화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최근 저서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도서출판 해안)에서 조선시대 불교가 나름대로 사회적·종교적 역할을 하면서 불교의 사멸 단계로 이어지게 했던 사실을 주요 고승과 비구니 고승을 중심으로 밝혔다.

황 교수는 “조선불교의 규모나 위상은 현대에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 초 불교탄압시책으로 사찰과 사원전 및 사원노비가 이전의 10분의 1이었지만 그래도 불교세는 대단했다. 설명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전기 한양에 거주하는 승려는 양반출신이었다거나, <동사열전>에 수록된 고승들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그 예이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 건국 후 성리학 절대체제가 바로 수립되지 못하고 17세기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은 고려말에 이어 조선 불교계 고승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말 천축승인 지공의 수제자 나옹해근은 양주 회암사를 중심으로 불교중흥을 도모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나 나옹과 불사에 동참했던 무학자초는 조선 건국 후 왕사로 책봉돼 그 유업을 계승했다. 무학은 한양 천도시 서울의 주산을 인왕산으로 해 궁궐을 지을 것을 건의하고, 청려사 백련사 삼막사 승가사 등 비보사찰을 지정했다.

태종-세종대에는 국가가 나서 불교를 선교양종 본산체제로 전환시켰고 판사급 고승들이 조선불교를 전개했다.

황인규 교수는 “근대불교의 본산 체제가 일제 불교의 체제만을 수용했다는 외적 요소를 강조하기보다 내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의 고승들은 불교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상소를 하면서 조선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명종대 16년 동안 선교 양종이 부흥할 수 있었고, 승과 실시로 서산휴정, 사명유정 등 고승을 배출할 수 있었다. 황 교수는 “서산·사명 등 고승의 배출은 조선 후기 산중불교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 불교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의승병을 일으킴으로써 국가·사회적으로 재인식됐다. 전쟁 후 조정은



무학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조선왕조의 불교탄압시책으로 사찰·사원전·사원노비 줄어 고려시대의 10분의 1 되었어도 佛心만은 절대 꺼지지 않았다

서산 등의 공적을 인정해 사당을 짓도록 했다. 해남 표충사, 갑사 표충원, 영변 보현사의 수충사, 밀양 표충사 등이다.

임란 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중국에서 석가 진신사리를 그의 어머니 공민 김씨의 능침사찰인 남양주 봉인사에 모셨다. 또, 그 행사를 서산휴정의 동문인 부후선수와 벽약각성이 주관해 하는 등 조선불교를 위해 힘썼다.

17세기 후 성리학적 세계관이 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영조·정조대에도 왕실의 능침사찰 운영은 계속됐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에 이장하고 능침사찰인 용주사를 중창한 것이 그 예이다. 영조는 무수리 출신으로 신분이 천했던 친모 숙빈 최씨를 위해 파주 보광사와 고양 흥국사 등을 능침사찰로 삼았다.

황인규 교수는 “사찰과 왕실의 외적 인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면면히 이어왔던 불교 정신 내지 문화의 소산”이라며 “정신적 배경에는 조선초의 행호, 중기의 하승보우, 후기 환성지안 등 조선시

대 순교한 고승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 불교계 고승의 활동에서 비구니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비구니 역할의 타전이 된 것은 왕실 및 귀족 사녀의 도량 ‘정업원’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해 조선중기까지 폐지를 거듭하면서도 한성 도성불교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태종의 후궁 10여 명은 태종 사후 한꺼번에 출가하는 등 왕후·공주 및 왕실녀의 불교신행과 비구니 출가는 조선후기까지 계속됐다. 특히 태조의 딸 경순공주와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였던 경혜공주는 공주 출신임에도 출가해 비구니가 됐다.

황인규 교수는 “서산과 부후 문도를 중심으로 수행과 교육이 지속되던 조선후기, 비구니들은 불교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일조했다. 근대에는 일제불교에도 오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구니들은 해방 후 정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19년 무렵 덕숭총림의 경성암은 한국 최초의 비구니선원이었다. 이곳에서는 유법희 김일희 김응민 이대영 등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을 배출했다.

황인규 교수는 “비구니들은 근대 비구니 선종운동과 현대 비구니 불교계의 주체성·정체성을 재고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동아시아 프리즘으로 본 한국불교

23일, 동국대 불문연 국제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옥)은 12월 2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사상가’를 주제로 주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원효의 화쟁론과 종밀의 원

웅설(양웨이중, 중국 남경대) ▷의상과 범강(강전학, 금강대) ▷원측과 규기(고영섭, 동국대) ▷승랑과 승조(김성철, 동국대) ▷지눌과 도견(나카지마 지로, 일본 하나조대) ▷만해와 니시다(히라영, 경희대)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실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2월 2일(목요일)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친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단박 깨칠 수 있다!!

### 석가대학원 수강생모집 (2012/1월 개강)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뿐이고,누구나 정진하기에 따라서 단박 깨칠 수 있다! 본각 선교원(석가대학원, 원장 고준환 교수)은 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시각(始覺) 법회(법화경·선어록·직지인심 중심)를 프리로 실시 합니다.(법사·선재·아하)

☘ 석가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

개강과목	교수	요일	시간
마음과 수학	임종록 교수	월	오후 5시부터 (2시간)
불교와 생명과학	우희중 교수	월	오후 7시부터 (2시간)
유마경과 승만경	이원주 교수	화	오후 5시부터 (2시간)
천문지리(동양학)	김문웅 선생	화	오후 7시부터 (2시간)
세계7대종교와 평화	송부웅 선생	수	오후 5시부터 (2시간)
유불선과 한시	최동락 법사	목	오후 2시부터 (2시간)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교수	목	오후 5시부터 (2시간)
영어 법화경	고준환 교수	금	오후 5시부터 (2시간)

■ 교강사 소개

임종록	한양대학교수학과 교수, 탄공법사	최동락	성공관대 유학철학박사 수료, 신선도 법사
우희중	서울대면역학 교수, 선사	김원수	홍익대 명예교수, 바른법원연구원 이사장
김문웅	한국자연지리학회 회장, 법사	고준환	경기도 명예교수, 본원 원장
송부웅	세계생활종교대학장, 한민족상고사대학장	이원주	전 동국대 교수, 동대부교 교장

- ※ 불교와 생명과학만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 석가대학원은 회강강좌 신청을 받으며, 불교와 동양의학, 깨달음의 징검다리 과정은 개설을 검토중입니다.
- ▶ 강의는 2개월 단위로 하며(입회비는 3만원, 불경제공) ▶ 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에 5만원입니다.

## 본각선교원 (석가대학원) 전화 02)762-484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206호 http://cafe.daum.net/BonGagAcademy